

'성공의 비결' 들려줄 농업기술명인 찾았다

농진청, '최고 명인' 5명 선발

- 식량작물 김복성씨 - 논농 재배 기계화 기술 현장에 보급 기여
- 채소분야 한민우씨 - 딸기 재배 위한 환경 개선 등 특허기술 보유
- 과수분야 이평재씨 - 다래 신품종 수확 후 장기보관 방법 고안
- 화훼특작 최상근씨 - 산나물류 대량생산 재배기술 정립
- 축산분야 오삼규씨 - 한우개량·사육에 관한 기술 전산화

각 농업분야에서 성공 비결을 들려 줄 최고농업기술명인들이 선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5일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특용작물, 축산 분야에서 탁월한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2020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 수상자를 선발했다.

농진청은 2009년부터 5개 분야 각 1명씩 농업기술명인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선발된 인원은 이들을 포함해 총 56명이다. 올해 농업기술명인은 ▲식량작물분야 김복성 씨(전북 고창군, 콩) ▲채소분야 한민우 씨(충남 아산시, 딸기) ▲과수분야 이평재 씨(전남 광양시, 다래) ▲화훼·특작

분야 최상근 씨(강원도 홍천군, 산채) ▲축산분야 오삼규 씨(경상북도 영천시, 한우)이다.

식량작물 김복성 명인은 논에서 재배하는 콩의 수량을 높이는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씨뿌림부터 수확까지 재배의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현장실증에 참여하는 등 논농 재배와 관련한 기계화 기술을 영농현장에 보급·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채소분야 한민우 명인은 비닐하우스 용 냉교반기, 양액 재배용 베드, 폐양액 재처리장치 등 딸기 재배를 위한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4건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과수분야 이평재 명인은 품질과 생산성을 높인 다래 신품종 3종과 수확 후 유통 중 물러짐을 예방하는 전용 용기 개발, 장기보관 방법 등을 고안해 다래재배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화훼특작분야 최상근 명인은 산채(산나물)류의 대량생산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장기저장을 위한 산야초 가공법을 개발해 특허 받았다.

축산분야 오삼규 명인은 한우개량과 사육에 관한 기술을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우 사육에 관한 기술력을 높였고, 보증 씨수소 4종을 특허등록(2018~2020년)해 한우개량에 이바지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에 선정한 농업기술명인에게 명인패와 시상금, 기념품(책)을 수여하며, 금년 12월에 농진청에서 열리는 '농촌진흥 사업 종합보고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농업기술명인의 기술적 노력과 성과가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지역 중소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의 협력으로'를 주제로 '2020 전북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의 사기 진작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전북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대통령 표창에 장류 제조업체 참고을김원권 대표 선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회장 두안정)는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지역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의 협력으로'를 주제로 '2020 전북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모범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

수하기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며,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으로 진행됐다.

또한 초청강연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중소기업인 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 강화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표창(1명), 국무총리 표창(1명), 장관 표창(21명)에 대해 직접 포상을 하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중소기업인의 노고와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상

생협력 및 창업·벤처 열기 확산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주)참고을 김원권 대표는 장류 및 식용유 제조업체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국, 대만, 태국 등에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고 일본 시장개척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했으며, 김제시 장학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두안정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접어든 지금부터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박경숙 도 농기원장, 익산 심리향벼 현장행정

박경숙 전북농업기술원장이 15일 도내 최고품질 생산단지인 심리향벼 재배 현장을 찾아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상처받은 농민을 위로하고 지역현안 사업인 심리향벼 재배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청취함으로써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 원장은 이날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로부터 올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단지 대표 및 농협관계자와 만나 심리향벼 판로 및 급유 추진방향에 대

해 논의하고 여산·금마면 지역을 둘러봤다.

심리향벼 재배단지 사업은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심리향벼를 확대 재배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익산 지역만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해 도내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경숙 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각종 시범사업 현장에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 행정체계 관리 방안 토론회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의 첫 주자로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승모)이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이번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 토론회는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총 2부로 진행됐다. /유호상 기자

호남고속철도 지반 침하 심각

토공 구간 55.6km 중 12.5km 구간이 허용침하량 초과
민주 김윤덕 의원 "코레일, 전라선 철도 증편해야
대안으로 익산역서 분리, 전라선 가는 방안 등 검토"



호남고속철도 지반 침하와 노반 침하가 심각하다는 전수조사 결과치가 처음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반공학회가 용역을 수행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안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일부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의 토공 구간 55.6km 중 12.5km(22.4%) 구간이 허용침하량(30mm)을 초과하는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용침하량을 초과한 22.4% 구간의 평균 침하량은 46.7mm이며 최대 침하는 무려 140mm인 것으로 알려

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왜 증편 안 하고 있느냐"라며 코레일, (주)SR, 국가철도공단에게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김윤덕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지반 침하의 심각성을 이번에 처음으로 수차례 확인했다"면서 "지반 침하와 노반 침하가 진행 중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노반 복원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간의 이견으로 하지보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분야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강과 유지보수 방안을 즉시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왜 증편 안 하고 있느냐"라며 코레일, (주)SR, 국가철도공단에게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김윤덕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지반 침하의 심각성을 이번에 처음으로 수차례 확인했다"면서 "지반 침하와 노반 침하가 진행 중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노반 복원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간의 이견으로 하지보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분야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강과 유지보수 방안을 즉시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

탄생 배경·현황 알리는 '체크카드에 담긴 가치'

신협, '영상 공모전' 시상식
배우미씨 작품 대상 수상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한 '신협체크카드 영상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치고 15일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영상 공모전은 신협 체크카드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소비층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총 80여 개 이상의 작품이 접수됐다. 응모작 중 전문성, 홍보성, 창의성,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내부심사를 통해 총 10개의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을 총괄한 신협중앙회 김남식 신용관리본부장은 "전문성을 갖춘 영상과 신협체크카드의 이미지를 잘 이해한 콘셉트의 작품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했다.

대상은 신협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신협의 탄생 배경, 현황과 가치 등을 쉽게 전달한 배우미 씨의 펜슬레이션 작품 '신협체크카드에 담긴 가치'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작 2편은 '혜택을 잔뜩 얻은 어부씨(안세형제팀)', '당신을 위한 맞춤 선물, 신협체크카드(박하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탄탄한 스토



15일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신협 '체크카드 영상 공모전' 시상식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리로 호응을 받았다.

최우수상작으로는 '당신의 모든 날에, 신협(송성팀)', '체크(Check) 같과; 추억의 한 페이지(슬로우푸드팀)'가 각각 선정됐으며, 장려상작 5개로 '엄마! 엄마! (LOVE U VIBE팀)', '이것만 기억하세요. 속, 속, 핑 팔랑!(속 팽 팔랑팀)', '요즘 대세 CUB 체크카드(김재민)', '인생카드, 신협체크카드(김재현 필름팀)', 'with my CU big(팀 앙장단)'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참여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대상 1,200만 원(1팀) ▲최우수 500만 원(2팀) ▲우

수상 200만 원(2팀) ▲장려상 100만 원(5팀) 등 총 3,100만원의 시상금과 시상식 참여인원에게 어부바 캐릭터 인형이 전달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신협중앙회 신용공제사업대표 송재근 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신협 체크카드를 널리 알리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상공모전 수상작은 10월 말부터 신협중앙회 공식 유튜브채널(www.youtube.com/c/신협중앙회) 및 신협체크카드 인스타그램 채널(www.instagram.com/cu_card) 등 각종 신협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외화 패키지 상품 가입하면 교차우대금리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주거래우대 외화적립예금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원화·외화 패키지 상품 가입 시 교차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상품 'NH주거래우대외화적립예금'을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NH주거래우대적금(원화)' 가입고객이 NH주거래우대외화적립예금 가입 시 0.1%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두 상품을 동시에 신규 가입할 경우에는 각각 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유스고객 및 자동이체 등록고객에게는 각각 0.0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10달러 이상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적립식 외화예금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2개월 단일이며 가입통화는 마달러이다. 2020년 11월말까지는 입금·지급 거처를 환율우대들

90%까지 적용한다.

농협은행은 출시기념 이벤트로 오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NH주거래우대외화적립예금과 NH주거래우대적금(원화) 동시 가입고객 중 3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장기요 본부장은 "금융환경 변동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며 "원화적립과 패키지 상품 형태의 외화적립예금을 은행권 최초로 출시함으로써 고객들의 외화 자산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 전문연구원 채용 29일까지 원서접수

LX공간정보연구원(원장직무대행 이화영)이 공간정보 정책·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싱크탱크가 될 전문연구원을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총 7명으로, 분야에 따라 공간정보 정책 및 전략 2명, 공간데이터 분석·처리 1명, 공간정보 표준 및 품질관리 1명, 법·행정 1명,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1명, 공간정보 지능화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근무지는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LX공간정보연구원이다.

세부 내용 및 신청서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www.lx.or.kr) 또는 LX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lxsi.re.kr)에서 다운이 가능하다.

작성한 서류는 오는 29일 16시까지 전자우편 lx0202@lx.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X공간정보연구원 연구기획실(063-906-5612)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